

나주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

산자부 에너지기술개발 공모 선정 250억 확보 지능형 저압직류(LVDC) 기술개발·실증 사업

나주시가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기술개발 공모 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국비 250억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에서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 기술 개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직류(DC)를

기반으로한 전원·부하기술 증가 추세에 맞춰 사용자의 안전한 전원체계 마련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직류기기의 안전성, 성능평가 기준 확보 및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수용가용 직류배전 핵심기기 기술개발 및 기술 기반 확보에 따른 국내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등 국내 전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2024년까

지 5년간 나주 혁신산단 내 국비 250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23억원, 민자 57억원 등 총 35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연구원, ㈜에코스, ㈜인텍 전기전자, 성균관대, 전남대 등이 공동 참여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산단에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비롯해 한전에너지기술 연구소, 에너지신산업 국가산단, 에너지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 기존 유치된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사업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생산 저장 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연계 70kV 급 핵심 전기기기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의 추가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중심의 전력 ICT클러스터, 혁신산단 중심의 친환경기자재 클러스터와 구축을 통해 국내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종환기자



'문화가 있는 행복 민원센터' 눈길

나주시, 매달 셋째주 금요일 운영

나주시는 19일 "시청 시민봉사과(민원실)를 방문하는 시민들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문화가 있는 행복 민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신규 시책으로 발굴·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행복 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민원실을 지친 일상 속 활력과 휴식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김영수기자

'문화가 있는 행복 민원센터'는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셋째 주 금요일 ▲힐링을 주는 캘리그래피&캐리커처 ▲네일아트 ▲향기로 만나는 꽃차 체험 등 3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17일 '힐링을 주는 캘리그래피&캐리커처' 프로그램으로 첫 운영한 행복민원센터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글귀를 개성 있는 손 글씨로 표현한 캘리그래피 엽서와 얼굴 특징을 꼭 짚어낸 캐리커처 등을 선물하며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나주=김영수기자

나주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 500만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나주시는 19일 "계약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존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시행돼오던 수의계약 방식이 특혜시비, 업체 간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성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나주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시행을 통한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는 물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기자



함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사활동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구태림)는 최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전남도미래재단, 함평경찰서 등과 연계해 '청소년 환경정리', '학교폭력' 등 센터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홍보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치매안심마을 추진 사업설명회

함평군은 최근 '치매안심마을' 추진을 위한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통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군 치매안심마을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인지저하자,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까지 치매파트너 및 치매 극복 선도단체 양성, 마을 벽

화꾸미기, 치매가정 주거환경 개선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치매는 그 어떠한 치료보다도 주위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효과적인 질병"이라며 "치매안심마을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기자

함평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자보호관 배치·권리현장 전면 개정 등

함평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초 납세자 보호관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납세자 권리현장 전면개정'을 공식 공표했다. 납세자 권리현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됐

다.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거의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군은 세정 현실에 맞는 권리현장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전면 개정안을 이번에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현장에는 ▲납세자 보

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또한 형식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형 형식으로 개정됐고 납세자를 위한 납득문도 별도 제정됐다.

함평군은 이번 전면개정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으로부터 납세자 구제를 더욱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규열 함평군 기획감사실장은 "개정된 납세자 권리현장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군민들도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 및 애로사항을 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함평=신재현기자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첫 걸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승인 완료

나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지역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첫 발을 내딛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유니세프(UNICEF)가 공인하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동력 추진을 위한 전국 지자체 공동협력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 공

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지난 2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7일 시의회 승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16일 자로 협의회 가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개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 관련 정책 발굴 및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김영수기자

황칠전문식당

사장님을 모십니다

061-864-5788

☑ 처음식당 창업하시는 분
☑ 기존식당 운영하시는 분

모두가능










대한민국 대표 황칠브랜드 황칠나라 황칠나라 판매점과 전문음식점에서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www.hcnara.co.kr 황칠나라